

##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이종은 (Jong Eun Lee)\*

####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job stress, and the impact of calling on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For this research, a qualitative study of prospective Christian teachers was conducted about their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For this, an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were administered among child welfare majors at a 4-year Christian university. The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showed that all students, but one had a sense of cal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students had a sense of calling, which they said affected their selection of career and made up their mind to become a child care teacher. Students also answered that their sense of calling effected their self-efficacy, and the stronger their sense of calling was, the higher their self-efficacy was. Moreover,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tended to show higher self-efficacy and lower job stress. However, one student answer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saying that she had a higher level of job stress because of the sense of calling. This seems attributable to the lower income and position of child care teachers given the current issues over the occu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d materials for career guidance,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students at Christian universities.

**Key Words** :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job stress

---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joeun@bu.ac.kr  
2018년 01월 22일 접수, 03월 23일 최종수정, 03월 25일 게재확정

## 1. 서론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일이다. 진로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의 방식이며, 한 개인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올바른 직업관의 부재로 방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입시에 관련된 주입식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학 진학 후에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구상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생 문제를 포괄하여 인생 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태도, 가치관을 계획적으로 신장시키도록 돕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서정선, 2002; 오수진, 2011).

최근 소명을 종교와 세속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지만, 본래 소명의 개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소명은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은 강한 소명지향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Os Guinness, 2000; 오수진, 2011: 17). 역사적으로 '직업'을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본 것은 16세기 청교도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분이 마틴 루터였다. 마틴 루터의 소명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chultze, 2005).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부르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이라 했다. 둘째는 특정한 임무와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특별한 부르심의 개념이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라 했다. 이에 대해 슐츠(Schultze, 2005)는 소명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 의해 공유되는 속성을 일컬으며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받은 소명을 말한다. 둘째는 개인적인 속성을 설명하며 각 개인의 사역처에서 각각의 위치, 일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명의식은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직업세계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인생의 진로 선택 및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청년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 진로나 적성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전기 성인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발달적 과업이다(Super, 1980). 최근에 와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직업선택으로 나타났는데(조혜영, 2010: 22) 이것은 높아지는 실업률과 불안정한 직장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청년기와 결혼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과거에 비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Arnett, 2004).

진로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직업보다 넓은 개념으로 어떤 시기에 특정 역할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을 합친 개념을 말한다(Super, 1980). 즉 진로는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이해 방식과도 관계가 있으며, 자신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에 가장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진로 준비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통로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신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한다(오수진, 2011: 35). 소명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진로 결정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소명에 대한 국내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은 취업 스트레스까지 이어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경필·심미영, 2014: 32). 따라서 이 시기 청년들에게 있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를 선택하기까지 진로 준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대학생들의 영적 안녕과도 관계가 있으므로(황혜리·류수정, 2009: 371-373)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진로상담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은애·이혜주,

2016: 67-68).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하여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를 넘어선 학문세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직업만족과 더불어 여러 진로관련 요소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보고되었다(박주현·유성경, 2012; 신윤정, 2013).

본 논고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에서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교육에 활용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수행을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기독교적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지방 C도시에 위치한 기독교대학인 A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4학년 기독교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16명 전원이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이었고, 예비보육교사들이었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A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기독교인 학생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효능감은 어떠한지, 취업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소명의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작성한 설문지 검토 후, 질적 연구방법론의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설문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본인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소명이 전공 선택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소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6. 본인은 취업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요?
7.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1 Example Questions for Interview (표1 면담 질문 사례)

Respondents	Sub-Categories	Example Questions
Christian Se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Child Welfare	Sense of Ca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at is your definition of calling?</li> <li>• Do you have a sense of calling?</li> <li>If yes, what is your calling?</li> </ul>
	Selection of C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 you think your calling influenced the selection of career?</li> <li>• Did you decide your selection of career after graduation?</li> </ul>
	Self-effi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at is your level of self-efficacy?</li> <li>• Do you think your calling influenced self-efficacy?</li> </ul>
	Job 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 you have a job stress?</li> <li>• Do you think your calling reduces the job stress?</li> </ul>

연구방법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기독교대학 4학년 아동복지전공 재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위의 질문을 가지고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4주간 설문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 3. 심층면접 방법

본 연구자는 2017년 9월 4일에서 9월 29일 사이에 심층면접 대상자 16명과 면접시간을 정하고, 연구실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면담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였다. 본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및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과 연구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자와 다른 견해가 있는지 논의하였으며,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소명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소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명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 핵심 주제는 ‘부르심에 응답’과 ‘칭지기의 사명감’이 도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 (1) 부르심에 응답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며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소명의식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며,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성취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자리에 나를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믿으며 나아가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의식은 그 부르심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인식이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명이란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 어떤 것인지 알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내 삶이 사용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 (2) 청지기의 사명감

“저는 소명의식을 사명감과 동의어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요. 소명은 사명과도 같아서 삶의 목적, 삶의 지침의 개념으로 저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만일 그 소명이 본인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하여도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감과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 사명감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이란 직업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며 자신의 직업에 따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로써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의 관점에서 직업을 calling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그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소명이란 부르신 목적에 맞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여 청지기로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예요”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부르심에 응답’과 ‘청지기의 사명감’으로 볼 수 있으며, ‘부르심에 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래 루터의

소명의 개념은 본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station)라고 하였다(Gustf, 1975).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책에 헌신하는 것이 사랑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직책의 일이 이웃의 복지에 쓰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돌보시는 일에 관여하시기 때문이다. 소명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오스 기니스(Os Guinness, 2000)는 그의 저서 『소명』(The Call)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와 행위,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라고 한다. 여기서 소명이란 맡겨진 배역 이상의 임무를 의미하며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명이란 기독교적 비전과 비전에 찬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다(Os Guinness, 2000).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 2001)는 소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소명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한다(벧전 2:10). 둘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소명이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소명이다. 즉,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소명이다. 이는 은사, 재능, 직업, 일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한다. 분명한 것은 소명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이다.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수와 자율성 등의 직업가치보다, 사회봉사와 더불어 사는 삶의 직업가치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도 있다(유병길, 2008).

## 2. 소명의식의 추구에 대하여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소명을 분석한 결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조사응답자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한 명을 제외한 조사응답자들은 모두 본인의 소명을 잘 깨닫고 있었고,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였다.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찾다보니 나는 아동을 대하는 일에 재능을 찾았고, 더불어 아동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소명으로 두게 되었어요.”

“소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는 것이에요. 나의 재능은 아동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아동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복지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생의 직업을 보육교사로 생각하고 있기에 아동복지와 소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란 어려워요. 또한 저의 소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봉사하고 희생할 마음의 각오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 (2)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소명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아동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기에 세상에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동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아동들이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를 입은 아이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유아와 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어 유아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저의 소명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영유아가 각자의 발달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유아 교사가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이 소

명이라고 생각해요.”

딕과 더피(Dik & Duffy, 2009)는 소명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문화적으로 유의미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소명이란 자기(self)를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초월적 부름을 경험하는 것이며, 삶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주요한 동기원으로 타인 지향적 가치와 목표를 갖는 것이다. ‘목적이나 의미’는 삶에서의 특정 역할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려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소명을 직업(job) 및 진로(career)와 구분하면서 자신의 일을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또는 경력 발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깊은 충만감을 얻고 더 큰 선(the greater good)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재정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이며,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이은경, 2012; 오수진, 2011; Serow, 1994).

신언혁(2004)은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직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로마서 12장 6-8절에서는 영적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역할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그리고 구제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교사 직분의 영역은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 3. 소명과 진로결정성에 대하여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소명이 전공 선택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졸업 후 진로는 보육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 중 한 명만이 소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였고, 따라서 진로가 무엇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는 스테

거와 그의 동료들(Steger et al, 2010)이 보고한 소명이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성이 높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소명이 전공 선택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아정체감 형성기를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이끄심대로 나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자발적인 동기와 선택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여러 권의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면서 ‘너의 꿈을 찾아라’ 라는 말에 도전받게 되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고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미술심리치료사의 첫 번째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아유치부 주일학교교사 도우미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과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런 것들이 저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사모님을 보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동에 대한 마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기독교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동복지학을 전공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전공 선택을 하는데 소명의식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각종 봉사를 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 이것은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함을 느낀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아동복지 분야에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고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하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교사다운 좋은 교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내가 교사다운 좋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어요.”

“소명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동,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장애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하기만 할 뿐, 저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공 공부를 깊게 하면서 소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명이 없어서는 하기가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요. 그래서 소명이 진로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꿈이었는데 21살 때 교회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반 아이들을 맡게 됨으로 교사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이들, 장애유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도록 주님께서 저의 시야를 넓혀 주셨어요.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전공을 선택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보육실습을 나갔고 실습했던 어린이집은 지역 특성상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가정, 편부, 편모 가정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 유아들이 일반유아들과 개인적인 특성, 상황 등이 달랐고 몇몇 유아들의 가정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가정환경이었어요. 이런 유아들을 보면서 실습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런 유아들을 돕고자 하는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보육교사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 후 아동복지사로도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좋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아동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대학입학 시에는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주어진 학업에 열심히 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둔 지금은 먼저 보육교사로서 일한 후에 더 공부하여 영유아교육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소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싶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소명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명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명에 따라 졸업 후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육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진로를 결정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는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 중 주목되는 응답은 장애유아나 장애아동에 관심이 많아서 보육교사를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해서 장애유아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몇 명 있었다. 위의 답변들을 분석해보면 소명의식이 전공 선택이나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에 대한 연구는 특히 최근 서구의 진로상담 분야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고은애·이혜주, 2016). 딕과 그의 동료들(Dik et al., 2009)은 내담자들은 직업소명에 관련된 경험을 얻기 원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진로 문

제로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소명이나 직업소명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서술한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의 실존주의 심리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Viktor, 1963). 실제 성인들 대상 연구에서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속감이 더 크며(Davidson and Caddell, 1994) 일과 삶에서 만족감이 더 크며 높은 수준의 직업 헌신도를 가진다.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오랫동안 가르치기를 희망했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Serow, 1994).

소명 및 진로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피와 세들라섹(Duffy and Sedlacek, 2010)은 3091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명과 진로 결정성, 안정감, 자기유능감 사이의 정적상관을 확인했으며, 디크와 스테거(Dik and Steger, 2008)는 소명이 있는 대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도 소명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소명과 진로의 관계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박주현과 유성경(2012), 오수진(2011)은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양난미와 이은경(2012, 62-64)은 소명과 진로정체감, 소명과 삶의 만족도와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윤정(2013, 215-218)도 소명이 진로적응성,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소명이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고 심리적 만족감, 일에서의 유능감과 더불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은애와 이해주(2016, 70-73)에 의하면 성격요인인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수준도 높으며,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도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종교와 진로 및 직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들이 간혹 있지만(강호경, 2003; 김기수, 2010; 박은혜, 2006; 양정석, 1999; 오수진, 2011)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국내의 소명 관련 연구들은 사회복지사, 공무원,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특정 직업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편화시키기 어렵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소명의식이 진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은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명이 진로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4. 소명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이 없으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소명이 없고,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한 명의 응답자는 자기효능감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했고,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 더욱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자기효능감의 핵심 주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출되었다.

##### (1)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계획 아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의 자기효능감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80%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난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며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효능감은 80%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0%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패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자기효능감은 중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 없는 일을 할 때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자기효능감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효능감을 높여 긍정적인 자아를 촉진시키고 나의 수준에 맞게 목표지향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그다지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4학년 2학기가 되자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믿는 신뢰가 있으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는 끈기와 인내의 능력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 (2)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나보다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점차 높여 나가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기대와 신념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의 효능감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못 해’라는 생각보다 ‘나는 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적은 편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대학교 때 많이 증진되었어요. 대학에 와서 기독교 동아리모임에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여러 가지 조별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성공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의 효능감은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효능감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을 때 오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크게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일단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효능감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던 것 같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일이 맡겨졌을 때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껏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격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5.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와 ‘자기효능감이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쳤다’인 두 가지 답변으로 나누어졌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으며, 기독교신앙이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응답자들 중 일부는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진다고 응답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는 소명의식이 없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 응답자는 자기효능감이 부족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1) 소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의식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던지 저의 최종적인 목표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에는 소명의식이 아직 없었던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고 동기가 없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 소명을 하나님께 받고 난 후로는 뚜렷한 목표가 생겨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명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던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명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제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와 더불어 자기효능감도 발달시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무엇인가 내가 이를 수 있고, 이루고 싶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소명이 뚜렷하면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그래서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소명의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소명의식을 지닐수록 자기효능감 또한 항상

된다고 생각해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에서는 비교적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어요. 소명이 나의 능력 밖의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으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명으로 선택한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중 가장 큰 달란트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다음 세대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 (2) 자기효능감이 소명에 영향을 미침

“저는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소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자기효능감이 다소 부족하여 소명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욱 노력하여 자기효능감이 더욱 높아진다면, 소명에 대해 더 명확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소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명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자기효능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소명도 확실해지고 자기효능감도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직업 결정과 관계되는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고경필·심미영, 2014: 33).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반두라(Bandura, 1997)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더욱 잘 대처한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사회 적응 능력이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일을 더욱 성공적이고 더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능력이상으로 수행함을 잘 예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 132-133)는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의 40% 정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고,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이상희, 2006; 고경필·심미영, 2014)

오늘날 우리의 보육현실은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인성문제가 점차 중요시되었다. 소명을 가진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인성이 좋을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직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육교사로서 그들의 기독교적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기독교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소명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교수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이성희, 2016; 이정수·오연주, 2006).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97). 이는 학생의 성취와 관련된 교사의 특성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을 의미한다(Ashton and Webb, 1986). 따라서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는 좋은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은영, 2017: 106-107; 조성연, 2005).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침이다. 교사의 삶으로서, 소명으로서의 정체성은 교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Palmer, 2005). 이것은 교사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 결국 소명이 있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며 결국 파머의 정체성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이 유아교사의 일을 소명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기쁨과 보람으로 견디어 내는 것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이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 의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교사의 정체성은 내면의 교사(teacher within)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Palmer,

2005). 즉 교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파머의 정체성의 개념은 ‘분리되지 않는 삶’ 혹은 ‘온전한 삶’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파머는 교사의 정체성(identity)을 교사의 성실성(integrity)과 온전성(wholeness)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교직의 일을 통해서 교사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성실성과 온전성의 바탕에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온전성은 교사로서 분리되지 않는 삶이다. 즉 교사로서의 내면의 모습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분열되지 않는 일치된 삶이다. 손정위(2013)는 교사의 정체성과 지식의 내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내면화된 지식은 교사의 삶 전체와 연관되었으며, 교사로서의 소명과 관련되었다. 결국 내면화는 단지 정보로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인식자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식이었다. 다시 말해 내면화된 지식은 일방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적 지식이었다. 따라서 교사의 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6.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건강, 대인관계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학업, 진로 및 취업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표은경, 200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에 대한 준비와 취업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정의석·노안영, 2001: 93-94).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인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었고, 비기독교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 응답자들은 취업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비기독교인 학생들과 다르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한 명만이 아직까지 취업스트레스는 크게 없다고 답변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핵심 주제로는 ‘진로결정 및 직업에 대한 두려움’과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도출되었다.

### (1) 진로결정 및 직업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만 막상 현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취업스트레스가 있어요. 사회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고민이고 취업스트레스예요. 보육교사를 하기로 정했지만 과연 나한테 잘 맞을지, 또 내가 잘 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취업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취업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취업스트레스를 크게 2가지로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걱정이에요. 소명의식에 따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지, 직장 어린이집에 취업을 해야 할지, 교직이수자로서 유치원교사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고민 후 지금은 유아교사로 나의 길을 선택하여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 친구들의 취업소식이에요. 나도 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지만, 가까운 주변 친구들의 취업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기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에 대한 소명도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한 꿈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취업스트레스가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소명의식만 오로지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과 직업의 사명과 현실적인 괴리감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으로서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면 보육교사의 처우나 급여가 낮아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 (2)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큰 편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스트레스는 큰 편은 아니지만, 취업스트레스는 소소한 걱정으로... (중략) 현장에서 겪을 어려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손재주가 없어서 교구를 잘못 만들면 어떡하나... 또는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취업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실제로 아이들과 부딪히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취업스트레스 같아요.”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에요.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하고... 유아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보육교사로서 내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 (3)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인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 대부분이 소명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응답은 단 한명의 응답자만이 소명의식 때문에 오히려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였다. 소명의식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또한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다보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일 소명이 있다면 취업스트레스가 훨씬 덜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또한 주변 친구들이 취업을 해도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취업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어떤 길을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 부모님의 기대 등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바라보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취업스트레스를 믿음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를 믿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는 반비례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소명을 생각하면 취업스트레스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있지만 소명의식이 마음을 다 잡고 나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취업스트레스는 기도와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를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소명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소명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소명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만일 제가 소명의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같이 힘들고 불안해하며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졌을 거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소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은 미래가 비록 불확실할 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여 준다고 생각해요.”

“현재 취업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취업스트레스가 있다면 소명의식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는 서로 상반관계가 있어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취업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편이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 (4) 소명의식과 현실 사이에서의 딜레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소명의식과 현실적인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명의식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 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주위의 시선이 보육교사직을 힘들고 보수가 적다고 꺼려해요. 소명 때문에 보육교사를 할 것을 결정한 후에 취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상기 답변은 한 응답자의 매우 흥미로운 답변으로, 응답자가 소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문제인 보수나 처우가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이 솔직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해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

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을 제공해 준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의미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적인 환경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다(고경필·심미영, 2014: 22).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는 경향이 많지만,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그 과제에 대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의 강도도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옥·박영숙, 2012). 고경필과 심미영(2014)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탐색했는데,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반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는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도는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조은영과 이지연(2015)은 초등교사의 감정적인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면서 소명이 초등 교사의 감정적인 노동 중 표면적 행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 준다고 보고했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은 그 결과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을 강화시켜주어 스트레스가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취업에 대한 준비를 더욱 하게 만들고 진로결정을 더욱 촉진시키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강유리, 2006; 조민제, 2010; 김명옥, 박영숙, 2012).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연구로는 스트레스를 부모, 학업, 친구, 생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미·이문희, 2011; 김은주·최경원, 2012). 또한 이상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스트레스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성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표은경(2009)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현립,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2008: 74-75)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진로발달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나타났다(고경필·심미영, 2014).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소명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소명이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기독교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아동복지학전공 4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6명 응답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은 소명이 진공 선택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명에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보육교사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보육교사의 인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다고 하였다. 응답한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사들의 전문성 및 교사,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강현숙, 2014; 김연아·김정은, 2012; 백영숙·강병재, 2013; 장미정, 2011).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비보육교사들의 소명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통해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었고, 소명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중 한 명은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소명과 보수 같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처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로서의 소명은 있으나 막상 직업으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을 제공한다면 진로결정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것은 정은주(2007)가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라고 여기며 소명의식이 높은 이들이 직업에 더 헌신하며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소명의식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소명의식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고경필·심미영, 2014)와 일치한다. 또한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결론적인 적용은 기독교적 소명을 통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유아교사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적 소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보육교사들의 소명 의식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 실천을 위한 최선의 교육장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생의 첫 번째 시기로서 인성과 신앙의 교육 효과가 크고,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상위 교육기관에 비해 적으며, 이미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은 평준화정책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기독교교육 이념에 동의하는 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있고, 학교는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택할 학생선발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근거하여, 기독교 단체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등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데 최적의 교육장소라고 주장한다(김성원, 2012).

이처럼 유아기는 신앙과 인성, 도덕성의 초석을 놓는 기초교육의 시기로 높은 교육 효과가 기대되며,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교사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기독교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교육자나 기독교 기관들의 투자, 일반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준비된 교사들의 배출, 부모들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는 인적 요소들의 준비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김성원, 2012).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유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유아교육을 담당한 기독교인 학자, 현장의 유아교사들, 부모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정희영, 2004). 따라서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키고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보육교사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도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소명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적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통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기독교 대학의 교육과제는 소명에 대해 재인

식하고,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소명 교육을 확립하며, 소명교육 교과과정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정정미, 2008).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명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교육으로서의 소명교육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명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진로상담 시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본고의 연구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경필·심미영, 2014). 따라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소명의식과 관련이 있고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경필·심미영, 2014).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태도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넷째,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준비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자신의 지성, 인격, 영성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신앙적인 면에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김광률, 2005). 따라서 기독교인 교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세속적 사과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모든 현장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의 모델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것을 소망해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교 4학년 아동복지전공 크리스천 여대생에 한정하였으므로, 한국의 전체 기독교 대학의 대학생에 적용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기독교 신자만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행된다면, 더욱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

으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각 전공 및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학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소명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하였으나, 각 전공 및 분야에서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성 및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양적 연구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명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서 후속연구를 시행한다면 소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Kang, Y. R. (2006). *The Effects of Employment Stress on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 University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강현숙 (2014). **교수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Kang, H. S. (2014).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tion of Education on Basic Life Habits*. Masters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Koyang, Korea.]
- 강호경 (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ang, H. K. (2003). *A Study of Differences of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고경필 ·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Ko, G. P. & Sim, M. Y.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9-38.]
- 고은애 · 이혜주 (2016). 대학생의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1), 59-80.
- [Ko, E. Y. & Lee, H. J. (2016). The Effects of Calling on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and Career Maturity: regarding on Extraversion, Intimacy, and Sincerity of College Students. *Faith & Scholarship*, 21(1), 59-80.]
- 김기수 (2010).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Kim, G. S. (2010). *The Effects of Volunteer Work on Self-Ident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Sa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김광률 (2005). 어디서 교육하는가? 오인택 편. **기독교교육학 개론** (pp. 333-361). 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 [Kim, G. R. (2005). Where is Education? In Oh, I. T. (Ed.). *Introduction of*

- Christian Education* (pp. 333-361). Seoul: Korean Christian Education Press.]
- 김대성 (2010). **칼빈의 소명론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직업선택을 위한 윤리적 접근**.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Kim, D. S. (2010). *Ethical Approach for Christian Selection of Job according to Calvin's calling*. Doctoral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김명옥 ·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Kim, M. O. & Park, Y. S. (2012). The Effects of Career Decion 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tress of Collge Students. *The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69-90.]
- 김성원 (201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교육 실천에 관한 제언. **신앙과 학문**, 17(2), 67-91.
- [Kim, S. W. (2012). The Suggestions of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Faith & Scholarship*, 17(2), 67-91.]
- 김연아 · 김경은 (2012).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105-121.
- [Kim, Y. A. & Kim, K. E. (2012). Teach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s Predictors of the Job Satisfaction of Infant Teacher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1), 105-121.]
- 김요셉 (1998). 기독교학교 설립의 당위성. **기독교교육 연구**, 9(1), 32-54.
- [Kim, J. (1998). Imperativeness of Foundation of Chritian School. *The Journal of Chritian Education*, 9(1), 32-54.]
- 김은주 · 최경원 (2012). 대학생의 우울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2), 231-239.
- [Kim, E. J. & Choi, K. W. (2012).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Life Environmental Studies*, 19(2), 231-239.]
- 맹용길 역. (1975). **루터의 소명론**, Gustf, Wingren (1965). Luther's Theory of Calling. 서울: 컨콜디아사.
- [Mang, Y. G. (1975). Luther's Theory of Calling. Seoul: Concoldiasa. Trans. Gustf, Wingren (1965). *Luther's Theory of Call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박은혜 (2006).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

학위논문. 광운대학교.

[Park, E. H. (2006). *A Study of Relations among Self-Concept,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 Career Maturity*. Masters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박주현·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Park, J. H. & Yoo, S. K. (2012).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Job Hop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lling and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13(2), 543-560.]

방은영 (2017).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03-140.

[Bang, E. Y. (2017). Influence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Church School Teachers -with Priority given to teachers in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Faith & Scholarship*, 22(3), 103-140.]

백영숙·강병재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 및 교수효능감과 교수창의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6, 25-47.

[Baek, Y. S. & Kang, B. J. (2013). The Relations among Job Satisfactions, Teaching Efficacy and Instructional Creativity of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 Child Care and Education*, 76, 25-47.]

서정선 (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형편변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Seo, J, S. (2002). *The Effects of Factors of School and Home Environments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Students' gender*.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손정위 (2013). 교사의 정체성과 지식의 내면화와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 **신학과 선교**, 43, 249-277

[Sohn, J. W. (2013).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Identity and Internalization of Knowledge. *Theology and Mission*, 43, 249-277.]

신언혁 (2004). 소명의 교사직으로서 교회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찰. **기독교와 교육**, 12, 46-57.

[Shin, O. H. (2004). A Study of the Sunday School Volunteer as a Teacher of Calling. *Christianity and Education*, 12, 46-57.]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

- 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Shin, Y. J.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areer Calling, Career Self-efficacy, Internal Motivation, and Career Adaptation.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14(1), 209-226.]
- 양난미 ·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Yang, N. M. & Lee, E. K.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Studies: Counseling and Psychology Therapy*, 24(1), 51-68.]
- 양정석 (1999). **공업계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Yang, J. S. (1999). *A Study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Job Value i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오수진 (2011).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Oh, S. J. (2011). *The Effects of Faith Maturity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유병길 (2008).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성숙도가 자아탄력성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Yu, B. G. (2008). *A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s Christianity Maturity on the Self Elasticity and Job Value*.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 1479.
- [Lee, S. H.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and Parental Support for Career.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13(3), 1461-1479.]
- 이상희 (2016). 예비유아교사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학문적 자아개념이 신체활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67-86.
- [Lee, S. H. (2016). The Effects of Physical Self-Efficacy and Academic Self-Concept

- on Physical Activity Teaching Efficacy Beliefs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6(3), 67-86.]
- 이정수 · 오연주 (2006).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수 활동 및 교수효능감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0(3), 103-124.
- [Lee, J. S. and Oh, Y. 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Daycare Center Teachers. Beliefs of DAP, Teaching Practices of DAP, and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ion Welfare*, 10(3), 103-124.]
- 이종인 역. (2005). *가르칠 수 있는 용기*, Palmer, P. (2005). *The Courage to Teach*. 서울: 한문화
- [Lee, J. I. (2005). *The Courage to Teach*. Trans. Palmer, P. (2005). *The Courage to Teach*. Seoul: Hanmoonhwa.]
- 이현림 · 김순미 · 천미숙 ·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Lee, H. R., Kim, S. M., Chun, M. S., & Choi, S. K. (2008). A Study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wareness of Career Barrier, Career Stres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21(4), 59-80.]
- 장미정 (2011). *유치원의 질과 교사의 직무만족도, 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ang, M. J. (2011).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quality,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n children's cognitive, linguistic,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갑순 (2003).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6(1), 33-60.
- [Chung, G. S. (2003). A Study of Integral Approach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6(1), 33-60.]
- 정대현 · 정옥경 (2010).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교육적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5(3), 293-326.
- [Chung, D. H., & Chung, O. K. (2010). A Study of Understanding, Reality, and Educational Conflicts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Faith and Scholarship*, 15(3), 293-326.]
- 정의석 ·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33, 85-101.

- [Chung, W. S., & No, A. Y. (2001).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Job Stress, Depression, Self-concept, and Body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s' Life*, Chonna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33, 85-101.]
- 정은주 (2007).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ung, E. J. (2007). *The Effects of Belief and Calling regarding the Public Service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Long-Term Care Worker*.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정미 (2008). 기독교 종합대학의 소명교육을 위한 제안. **기독교교육정보**, 19, 49-72.
- [Chung, J. M. (2008). A Suggestion of Calling Education for Christian University. *The Information of Christian Education*, 19, 49-72.]
- 정희영 (2004). **기독교 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Chung, H. Y. (2004).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 조미숙·천세희·김창숙 (2014). 임상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과 직업소명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4(5), 689-694.
- [Cho, M. S., Chun, S. H., Kim, C. S. (2014). A Study of Character Type and Job Calling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rean Dental Clinic Studies*, 14(5), 689-694.]
-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5(2), 47-60.
- [Cho, B. J. (2010).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the Job Anxiety and Job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5(2), 47-60.]
- 조성연 (2005).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교육과학연구**, 36(1), 81-104.
- [Cho, S. Y. (2005).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6(1), 81-104.]
- 조은영·이지연 (2015). 초등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23(3), 1-23.
- [Cho, E. Y., & Lee, J. Y. (2015). The Effects of Calling and Meaning of 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Work and Job Str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Journal of Open Education*, 23(3), 1-23.]
- 조정아·조은진 (2008). 한국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운영 실

- 태와 교사의 인식도 조사. **아동학회지**, 9(1), 305-324.
- [Cho, J. A., & Cho, E. J. (2008). A Study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in Practice and Teacher's Understanding of Korean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 *The Journal of Child Study*, 9(1), 305-324.]
- 조혜영 (2010).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3(2), 15-30.
- [Cho, H. Y. (2010). A Comparative Study of Understanding of Career and College Life in Freshmen an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unseling and Evaluation*, 3(2), 15-30.
- 최윤미·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 [Choi, Y. M., & Lee, M. H. (2011). The Risk Factors and Protection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Development. *The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2).]
- 표은경 (2009).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Pyo, E. K.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Types of Facing Stress in College Femal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황영철 역. (2001). **그리스도인의 비전**. Walsh, B. J. & Middleton. R. (1987).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Hwang, Y. C. (2001).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Seoul: Korean Christian College Students' Press. Trans. Walsh, B. J. & Middleton. R. (1987).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황혜리·류수정 (200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성숙 및 영적 안녕과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18, 355-380.
- [Hwang, H. R., & Ryu, S. J.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piritual Well-being. *The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Studies*, 18, 355-380.]
- 홍병룡 역. (2000). **소명**, Os Guinness (2000). *The Call*. 서울: IVP.
- [Hong, B. R. (2000). *Theory of Calling*. Seoul: IVP. Trans. Os Guinness (2000).

- The Ca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홍병룡 역. (2001).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Stevens, R. P. (2001). *Theology of the Laity for 21st Century*. 서울: IVP.
- [Hong, B. R. (2001). *Theology of the Laity for 21st Century*. Seoul: IVP. Trans. Stevens, R. P. (2001). *Theology of the Laity for 21st Century*.]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andura, A. (1997). *The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Davidson, J. C., & Caddell, D. P. (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35-147.
-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625-632.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424-450.
-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of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27-41.
- Schultze, Q. (2005). *Here I am: Now what on earth should I be do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Serow, R. C. (1994). Called to teach: A study of highly motivate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7, 65-72.
-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82-96.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Viktor, F.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 “Market Defini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2.1.3.). Retrieved from [http://www.cccu.org/docLib/20020103\\_CCC\\_Maguire Session\\_III.ppt#293,16](http://www.cccu.org/docLib/20020103_CCC_Maguire%20Session_III.ppt#293,16),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of a Christian Education (2008.3.3.)

## 논문초록

#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종은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명의식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 소명의식이 진로선택 및 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기독교대학 4학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동복지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한 학생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소명의식이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명에 따라 진로를 보육교사로 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었고, 소명의식은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응답자 중 한 명은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에서의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